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한 경 임*

창원대학교

송 미 승**

세한대학교

김 민 정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요 약 》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을 주관성 연구 방법(Q-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 31명이었으며, 전환교육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제 1유형, 장애인 교육의 이상적 개념 지향형, 제 2유형, 전환교육의 실효적 요건 추구형, 제 3유형,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 참조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세 유형 중 1유형이 전환교육에 대한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각 유형별 학부모들의 답변에 대하여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개인별 의견을 토대로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명명하였으며, 유형별 차이와 특수교육에의 함의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전환교육,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 주관성 연구

* 제1저자(hriver2@hanmail.net)

** 교신저자(sms5956@hanmail.ne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일반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와 직업에 관심을 두고, 대학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살린 직업을 얻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경우는 대부분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어려움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정인숙 외, 2007). 특히 발달장애학생은 기술 습득과 일반화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연계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Clark & Kolstoe, 1995), 또한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 및 환경적인 차이를 고려한 지속적인 전환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박정식, 2009).

전환교육은 장애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지원서비스 강조와 조치들이 달라지겠지만,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자아인식과 자기결정능력, 일과 경제적 욕구, 이동에 대한 독립적 욕구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학교에서 학교 이후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결과지향과정 내에서 고안된, 장애학생을 위한 일련의 통합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전보성, 2005). 장애학생들이 학교 졸업 이후 성인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전환교육 및 서비스 지원은 장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성인생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학생들의 자립 생활 능력신장과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 모두를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민간단체, 가족들의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교육계획과 실시에 있어서 가족의 참여는 중요하다. 장애아동의 가족은 장애아동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오고 많은 시간 동안 일상생활,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교육과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가족은 중등교육 이후 고용을 돕는 핵심적인 요인이며(Hasazi, Gordon, & Roe, 1985) 학생의 요구를 지속적·일관적으로 감독하는 존재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참여는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성인생활로의 전환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며 적극적인 부모참여는 더 나은 졸업 후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Landmark, Ju, & Zhang, 2010). Morningstar, Turnbull과 Turnbull(1995)과 Wagner 등(2005)도 장애학생 스스로 성공적인 성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모들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적으로 부모들은 장애학생들의 장점, 흥미 및 필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및 전환교육 관련 담당자들이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적합한 전환목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Ankeny, Wilkins, & Spain 2009; Newman, 2004).

이와 같이 전환교육에서 부모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환교육 및 서비스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환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신지체와 자폐성향의 학생을 포함하는 발달장애 학생의 출현율이 높은 관계로 발달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환교육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권향자(2002)의 연구 결과에서는 정신지체 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부분이 전환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 능력을 갖춘 직업지도 담당교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전환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지역관련업체의 인식 및 협조 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시설·설비, 프로그램 부족,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석진(2005)의 연구에서 정서장애 학교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중학교 때부터 전환교육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자녀의 진로결정을 학생, 교사, 부모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들 대부분이 전환교육의 요구를 느끼고 있었고, 특히 재정적 요구를 필요로 하였으며, 고등부 부모가 전환교육에 대해 초·중등 부모보다 더 강한 요구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요구, 고용업체의 인식 전환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녀의 전환교육에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즉, 지금까지 전환교육에 대한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김송미, 2011; 오은영, 2010; 장지혜, 2008; 김은정, 2005; 서석진, 2005; 박창석, 2003; 권향자, 2002; 신은경, 2002)은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로, 이러한 행태주의적 전통에 기초한 연구들은 우선 연구의 대상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며, 연구자가 조작한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따라 구조적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사회현상이 측정된다. 이것은 행태주의적 연구 방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김순은, 2007),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환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유형이 밝혀지면, 현재 우리나라 전환교육의 현 실태에 대한 진단 뿐 아니라 전환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막연한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학부모들의 각 인식 유형별 전환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을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김은정, 2005)에서 고등부 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볼 때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의 전환

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밝혀보는 것은 전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특수교육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밝히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주관성 연구 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에서는 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기 보다는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중시한 연구를 전제하고 있다(김경숙, 한경임, 2006; 김홍규, 2008). 학부모의 입장에서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은 그들이 전환교육에 대해 가지는 주관성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므로 발달장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연구자의 폐쇄된 시각이 아닌 개방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통해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교육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태도 유형을 주관성 연구인 Q-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의 구조적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의 각 유형별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Q-방법론은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연구 대상 표집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Q-연구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편의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의 참여자들은 경남 C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31명으로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명(비율)

성별 (부/모)		연령대		학력		직업		종교		자녀 성별		자녀 학년			자녀 학교 유형		자녀 장애 유형	
부	모	40대	50대	고졸	대졸	유	무	유	무	남	여	1	2	3	일반 학교	특수 학교	정신 지체	자폐
10 (32.3)	21 (67.7)	22 (71.0)	9 (29.0)	20 (64.5)	11 (35.5)	17 (54.8)	14 (45.2)	18 (58.1)	13 (41.9)	18 (58.1)	13 (41.9)	10 (32.3)	6 (19.4)	15 (48.4)	25 (80.6)	6 (19.4)	23 (74.2)	8 (25.8)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Q-방법론의 연구 수행과정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연구 수행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제 1 단계

Q-표본의 선정
<p>1. Q-모집단(concourse)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헌, 선행연구를 통한 진술문 추출 •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과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개방형 포괄적 단일항목 질문을 통한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진술문 추출 •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학부모, 장애청소년교육 비영리단체장, 특수학교 고등부담당교사, 고등학교 특수학급교사와 심층면담을 통한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진술문 추출 <p>위의 세 단계를 통해 추출된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모든 진술문들을 Q-모집단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과 교수, 주관성연구 전문가, 특수학교교사, 일반학교 특수학급교사에게 진술문 내용의 타당도 검증 <p>2. Q-표본의 선정</p> <p>3. Q-카드와 Q-표본 분포도 준비</p>



제 2 단계

P-표본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학부모 38명을 편의 표집 방법으로 선정



제 3 단계

Q-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 정상 분포방식에 따라 6×10cm 카드에 인쇄된 33개 Q-표본 진술문을 9점 척도 상에 대상자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P-표본에게 요구 •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과 관련하여 P-표본과의 면담 시행 • Q-표본 분포도 작성 내용이 부적절한 학부모 7명을 제외한 31명을 분석대상으로 결정



제 4 단계

Q-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 정상 분포방식에 따라 6×10cm 카드에 인쇄된 33개 Q-표본 진술문을 9점 척도 상에 대상자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P-표본에게 요구 • 양극단에 분류한 진술문과 관련하여 P-표본과의 면담 시행 • Q-표본 분포도 작성 내용이 부적절한 학부모 7명을 제외한 31명을 분석대상으로 결정



자료의 처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ANL pc program에 맞는 data-file 작성 → Q-요인 분석(Q-factor analysis)

〈그림 1〉 연구의 절차 및 과정

1) Q-표본 선정방법(Q-sampling method)

(1) Q-모집단 구성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가 전환교육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며 공유하게 된 의견, 인식,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얻기 위해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개

방형의 포괄적 단일항목 질문(global single-item question)을 통한 면담 및 서면조사 그리고 심층면담 등을 통하여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헌을 통한 Q-모집단 추출

Q-모집단 추출을 위해서 전환교육의 실태, 학부모와 교사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논문, 저서 등을 참고하여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② 개방형 포괄적 단일항목 질문에 의한 면담 및 서면조사를 통한 Q-모집단 추출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생 15명(일반교사 9명, 특수교사 6명),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학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개방형 포괄적 단일항목은 전환교육의 개념과 종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환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환교육 지원 시 특수교사의 역할, 전환교육에 있어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③ 심층면담을 통한 Q-모집단 추출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해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 2명, 장애청소년 교육 비영리단체장 1명, 특수학교 고등부담당교사 1명, 고등학교 특수학급교사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전환교육에 대한 견해 등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다. 심층면담은 개인당 2시간 정도 실시하였으며 면담내용은 면담자의 동의 아래 모두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교사와의 심층면담에서는 전환교육 지원 시 힘든 점, 학부모와의 관계,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환교육의 내용과 효과, 장애학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꿈과 비전 등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학부모와의 심층면담에서는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전환교육에 대한 만족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전환교육 프로그램, 자녀 양육 시 힘든 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고민, 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 정도 등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이상의 세 단계를 통하여 추출된 자료들을 문항별로 진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상이한 견해라고 생각되는 진술문들을 망라하여 총 55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2) Q-표본 선정

위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 550개의 모집단 진술문을 여러 번의 반복적인 읽기를 통해 먼저 유사한 항목에 속하는 진술문으로 집단화하여 총 8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8개의 범주는 ‘전환교육의 개념 및 특성’, ‘전환교육 지원 시설’, ‘전환교육의 현재 상황’, ‘전환교육 후의 사회적 제도’, ‘특수교사의 역할’, ‘전환교육의 장애 요인’, ‘전환교육의 향후 나아갈 방향’, ‘특수교사와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 등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각각의 범주에서 의미가 반복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비슷한 내용들은 통합하여 240개의 진술문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Q-방법론의 통계처리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김흥규, 2008)으로 각 진술문을 계속 검토하면서 중립, 긍정, 부정의 진술문이 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특수교육 전공교수 1인, Q-방법론 연구 경험이 많은 교수 2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쳐 40개의 진술문으로 1차 Q-표본을 구성하였다. 다시 1차 Q-표본을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학부모 3명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나 표현을 수정하여 최종 33개의 Q-표본을 완성하였다.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Q-표본 진술문

Q-진술문
01. 전환교육이란 장애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02. 전환교육은 간단한 단순노동 경험이다.
03.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전환교육의 성공이 어렵다.
04.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
05. 현재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교육을 받는 것은 장애학생들을 받아줄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06. 장애학생들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07. 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사가 부족하다.
08.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직업과 관련된 것보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많다.
09. 학교의 전환교육은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10. 현재 전환교육은 사회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도이다.
11. 학교에서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학생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전환교육을 지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2. 학교에서의 전환교육은 현실에 뒤쳐지는 기능 중심의 진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3. 학교에서의 전환교육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Q-진술문

14.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환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5. 전환교육을 하더라도 부모들의 과잉보호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없다.
16. 전환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책을 보아도 접근하기가 힘들다.
17. 전환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18. 학교에서 배운 기본교육 바탕 위에서 그것을 계속 숙달시키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 작업장들이 많이 생겨야한다.
19.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에서 배운 전환교육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연계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20. 학교 이외에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21. 전환교육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직업, 사회성, 독립적인 자립생활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한다.
22. 전환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직업탐색부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3. 장애학생이 여러 가지 직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현장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24.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더 시급하다.
25. 성공적인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해 전환교육관련 학부모회이나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26.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전환교육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27.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은 사회의 보조 노동력으로서의 기본 능력 습득 정도이다.
28. 사회가 장애인들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책임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
29.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장애학생의 진로사항은 특수교사의 역할이 아니다.
30.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31. 장애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가는 보호 속의 보육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32. 국가나 사회가 지원해주는 부분만큼 부모가 같이 만들어나가는 부분도 중요하다.
33.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도 전환교육의 일부이다.

(3)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 작성

Q-표본의 표집을 완료한 후 Q-분류를 위한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Q-sample distribution)를 준비하였다.

Q-카드는 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들을 6×10cm의 크기로 카드화 할 수 있는 두꺼운 종이에 선정된 진술문들을 인쇄하여 연구 대상자가 읽기 쉽고 취급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Q-표본의 분포도는 연구 대상자들이 Q-카드의 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분포를 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2) P-표본 표집방법(P-sampling method)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연구이므로 P-표본 표집은 표본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큰 표본인 경우 Q-방법론에서의 전제인 소표본 이론에 어긋나며 Q-연구는 사람이 변인이 되므로 P-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Q-factor)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통계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김홍규, 2008; 김경숙, 한경임, 2006). 또한 P-표본의 특성은 연구 목적이나 연구 주제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의 P-표본은 경남 C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 38명을 선정하였으며, Q-카드 작성이 불충분한 대상을 제외한 31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Q-분류작업(Q-sorting)

Q-표본과 P-표본의 선정이 끝나게 되면 P표본으로 선정된 각 응답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Q-표본을 분류시키는 Q-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Q-분류작업은 개인이 복잡한 주제나 이슈 또는 상황에 관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스스로 모형화하는 것으로서, 각 응답자는 진술문을 읽은 후 그것들을 일정한 분포 속에 강제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의 Q-분류 절차는 Q-표본으로 선정된 각각의 진술문이 적힌 카드를 응답자가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으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서 바깥에서부터(+4)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였다.

Q-분류작업 과정에서는 각 대상들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응답지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거나, 연구자가 면담을 실시하여 각 대상자들의 의견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P-표본 각 대상자들의 의견을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 분석 과정에서 제시하고 유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 처리

P-표본인 연구 대상 31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2점(-3), 3점(-2), 4점(-1), 중립 5점(0), 6점(+1), 7점(+2), 8점(+3) 그리고 가장 찬성하는 경우(+4)에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Q-요인 분석은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QUANL pc program에 의해 유형이 분류된 후 각 유형에 대한 특성을 찾아내고 명명하기 위해 각 유형의 진술문을 Q-방법론 전문가인 교수 2인과 함께 5-6회에 걸쳐 논의하였으며, 교육 경력 7년 이상의 중등학교 담당 특수교사 3인에게 의견을 물어 각 유형에 대해 최종 명명하였다. 최종 명명한 유형에 따라 결과 분석 과정에서 각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이 긍정하거나 부정한 진술문의 특성을 진술하고, 각 대상자들의 개인 의견을 제시하여 각 유형 명명의 타당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전환교육에 대한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 인식의 구조적 유형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유형의 주관성을 Q-요인분석 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3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약 51%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 1유형이 35.7%, 제 2유형이 9.2%, 제 3유형이 6.2%였다. 이것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연구 대상자인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51% 설명해준다는 뜻이다.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3>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의 백분율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고유치	11.0742	2.8689	1.9232
변량의 백분율	.3572	.0925	.0620
누적빈도	.3572	.4498	.5118

<표 4> 유형 간 상관관계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1유형	1.000		
제 2유형	.581	1.000	
제 3유형	.224	.382	1.000

<표 4>에서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581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224,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382로 각 유형 간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으로 제 1유형의 큰 축을 중심으로 제 2유형, 제 3유형이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에 분류된 발달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 중치는 <표 5>, <표 7>, <표 9>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각각의 유형 내에서 인자가 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그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혹은 이상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연구 대상자 31명은 제 1유형이 14명, 제 2유형이 14명, 제 3유형이 3명으로 분할되어 나타났다.

2. 전환교육에 대한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 인식의 각 유형별 특성

1) 제 1유형 : 장애인 교육의 이상적 개념 지향형

제 1유형으로 분류된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는 모두 14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가장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들을 표준점수 ± 1.0 을 중심으로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제 1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위	연구 대상자 번호	인자 가중치	부 /모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학교유형	자녀 학년	자녀 장애유형
1	VAR15	3.1881	모	41	고졸	무	무 유 무 유 무 유 유 무 무 유 무 유 유	남	18	일반	1	정신지체
2	VAR26	1.9959	부	51	고졸	유		남	20	일반	3	자폐성장애
3	VAR09	1.9450	모	47	고졸	무		여	19	일반	3	정신지체
4	VAR11	1.7262	모	47	고졸	무		여	19	일반	3	정신지체
5	VAR06	1.4424	모	44	대졸	유		남	19	일반	2	정신지체
6	VAR02	1.1336	모	51	고졸	유		남	18	특수	1	자폐성장애
7	VAR13	1.0521	모	53	고졸	무		남	19	특수	1	정신지체
8	VAR03	1.0322	모	44	고졸	무		남	17	일반	1	정신지체
9	VAR16	.8081	모	49	고졸	무		남	20	일반	3	정신지체
10	VAR29	.7341	부	54	고졸	유		남	20	일반	3	정신지체
11	VAR17	.6973	모	47	대졸	무		여	19	일반	3	정신지체
12	VAR21	.6761	부	54	대졸	유		남	19	특수	1	정신지체
13	VAR31	.5572	부	49	석사	유		여	20	일반	3	정신지체
14	VAR12	.5481	모	47	고졸	유		남	20	일반	3	자폐성장애

<표 6> 제 1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21	전환교육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직업, 사회성, 독립적인 자립생활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한다.	2.01
22	전환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직업탐색부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1.66
23	장애학생이 여러 가지 직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현장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1.35
19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에서 배운 전환교육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연계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1.26
20	학교 이외에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1.15
1	전환교육이란 장애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1.13
18	학교에서 배운 기본교육 바탕 위에서 그것을 계속 숙달시키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작업장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1.07
29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장애학생의 진로사항은 특수교사의 역할이 아니다.	-1.18
27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은 사회의 보조 노동력으로서의 기본능력 습득 정도다.	-1.31
11	학교에서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학생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59
2	전환교육은 간단한 단순노동 경험이다.	-1.79
26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전환교육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2.29

제 1유형에 속한 학부모들이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21번, 22번, 23번)을 볼 때 이 유형의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은 평생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센터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26번, 2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 1유형의 학부모들은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전환교육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환교육은 단순노동 경험이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긍정적 동의를 보이는 진술문(1번, 19번)에서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의 자립을 도와주는 교육이며, 학교에서 배운 전환교육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제 1유형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을 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친 장애인교육의 일부 또는 그 자체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29번, 11번)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 전환교육은 학교에서 당연히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전환교육의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27번 진술문을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제 1유형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 형태는 전문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제 1유형의 학부모들이 가지는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자 가중치가 높은 이 유형의 대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개인 의견을 살펴보았다.

15번 대상자: 장애아동들은 교육을 바탕으로 스스로 응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위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지적장애인들이 많다.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번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전문교사와 함께 전환교육이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전환교육이 필요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아동이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부모가 느끼는 부담감이 너무나 크다. 졸업 후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막하다. 그런 부분을 특수교사가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주려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할 것이다.

26번 대상자: 단정 지어서 전환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가?

11번 대상자: 발달장애아동들은 성인이 되면 퇴보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학교 과정에서 익힐 기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평생교육을 통해 퇴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 1유형은 학령기 이후에도 장애인교육의 연장선에서 전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환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애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전환교육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일반적인 장애인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진술문과 개인 의견을 볼 때 제 1유형의 학부모들은 일반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전환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고 있다.

또한 학령기의 특수교육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로 이어져야 하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제 1유형은 전환교육의 이론적인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한계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 1유형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교육의 이상적 개념 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 2유형 : 전환교육의 실효적 요건 추구형

제 2유형으로 분류된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는 모두 14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가장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을 표준점수 ± 1.0 을 중심으로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 제 2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위	연구 대상자 번호	인자 가중치	부 /모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학교유형	자녀 학년	자녀 장애유형
1	VAR10	2.2839	모	45	고졸	유	무 유 유 무 무 유 유 무 유 유 유 유 유 유	여	19	일반	2	정신지체
2	VAR08	1.7520	모	47	고졸	무		남	19	일반	3	정신지체
3	VAR18	1.6989	모	48	대졸	무		여	20	일반	3	정신지체
4	VAR04	1.1896	모	46	고졸	무		남	18	일반	1	정신지체
5	VAR23	1.1772	부	49	고졸	유		여	19	일반	2	정신지체
6	VAR25	.7605	부	47	고졸	유		여	19	일반	3	정신지체
7	VAR19	.7423	모	47	대졸	무		여	20	일반	2	자폐성장애
8	VAR20	.6796	모	52	고졸	유		여	19	일반	2	정신지체
9	VAR28	.6512	부	50	대졸	유		여	19	일반	3	자폐성장애
10	VAR07	.6421	모	50	대졸	무		남	21	특수	3	정신지체
11	VAR01	.5513	모	45	고졸	유		남	17	일반	1	자폐성장애
12	VAR14	.5048	모	44	대졸	무		여	17	일반	1	정신지체
13	VAR05	.4385	모	49	고졸	유		남	18	일반	1	정신지체
14	VAR22	.4239	부	48	고졸	유		남	18	특수	2	자폐성장애

<표 8> 제 2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20	학교 이외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1.77
4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	1.71
5	현재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교육을 받는 것은 장애학생들을 받아줄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1.58
3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전환교육의 성공이 어렵다.	.99
19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에서 배운 전환교육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연계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91
11	학교에서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학생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9
31	장애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가는 보호 속의 보육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34
15	전환교육을 하더라도 부모들의 과잉반응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없다.	-1.37
2	전환교육은 간단한 단순노동 경험이다.	-1.56
29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장애학생의 진로사향은 특수교사의 역할이 아니다.	-1.77
26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전환교육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2.04

제 2유형에 속한 학부모들은 진술문 20번과 4번에 높은 동의도를 보이고 26번과 29번 진술문에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전환교육의 가능성을 믿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전환교육에도 특수교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유형의 학부모들은 현재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환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긍정적 동의를 보이는 진술문 3번, 5번, 19번을 볼 때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전환교육의 성공이 어렵고,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 2유형의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제도와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진술문 15번에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양육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 요소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번, 11번을 부정함으로써 전환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으나, 실제 전환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제 2유형의 학부모들은 현재의 전환교육 환경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시설 측면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 2유형의 학부모들이 가지는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자 가중치가 높은 이 유형의 대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개인 의견을 살펴보았다.

10번 대상자: 장애학생들이 성인이 되어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장애 가족들에게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주게 된다.

8번 대상자: 현재로서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기관도 없을뿐더러, 전문교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환교육에 대한 문제는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특수교육에 대해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국가 차원에서 부모들의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한다. 부모의 노력보다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번 대상자: 독립적인 교육기관이 마련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환교육의 틀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 받을 장소, 시설이 부족해서 졸업 이후의 진로가 매우 두렵다.

이상에서 제 2유형의 대상자들은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육받을만한, 학교 이외의 시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번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교육에 대해서 특수교사도, 부모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특수교사만의 잘못만이라고 꼬집을 수도 없다. 제도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4번 대상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면 전공과 밖에 갈 곳이 없다. 전공과를 졸업해 봤자 22살이다. 졸업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23번 대상자: 부모가 장애아동을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나 기관에서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상의 개인 의견에서 2유형의 학부모들은 현재 장애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제

9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1호)

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제 2유형에 속하는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며, 현재로써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전환교육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하며 접근하는 인식을 보이므로 제 2유형의 인식을 「전환교육의 실효적 요건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 3유형 : 장애인 교육의 특수성 참조형

제 3유형으로 분류된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는 3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들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과 가장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을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 제 3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순위	연구 대상자 번호	인자 가중치	부 /모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학교유형	자녀 학년	자녀 장애유형
1	VAR24	1.1360	부	53	대졸	유	유	남	20	특수	3	자폐성장애
2	VAR27	.6794	부	48	고졸	유	무무	남	18	일반	1	정신지체
3	VAR30	.6132	모	43	대졸	무		여	20	일반	3	정신지체

<표 10> 제 3유형이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

항목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20	학교 이외에 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1.94
21	전환교육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직업, 사회성, 독립적인 자립생활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한다.	1.68
6	장애학생들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1.56
24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더 시급하다.	1.42
11	학교에서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학생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15
30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평생교육과 전환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85

항목 번호	Q-진술문 내용	표준 점수
5	현재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교육을 받는 것은 장애학생들을 받아줄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0.96
14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전환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4
31	장애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가는 보호 속의 보육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3
15	전환교육을 하더라도 부모들의 과잉보호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없다.	-1.55
25	성공적인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해 전환교육관련 학부모회이나 상담 등을 실시해야 한다.	-1.61
28	사회가 장애인들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책임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	-2.25

제 3유형에 속한 학부모들은 진술문 20번, 21번에 가장 높은 동의를 보여 다양한 측면에서 전환교육의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4번 진술문에 동의함으로써 전환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제도나 시설의 마련보다 사회 전체의 수준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유형의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시설이나 물적 자원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개선과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6번과 11번 진술문에 동의함으로써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장애학생들이 갖는 한계성을 인정하되,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진술문 28번을 가장 부정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환교육을 학교에만 책임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았다. 또한 5번, 15번, 25번 진술문에 부정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사회적 제도의 부족함 때문만이 아니라 장애학생이 갖는 특수성 또는 한계성의 문제로 계속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25번 진술문에도 부정하여 전환교육 지원에 있어서 학부모 자신의 참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제 3유형의 학부모들이 가지는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자가중치가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개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번 대상자: 정인지체아동의 경우 사회에 100% 융합되기 어려우므로 평생교육이 사회적 완충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정확도, 작업속도, 순발력, 융통성을 요구하는 산업적 특성상 아무리

단순한 직업도 장애아들이 하기에는 보조기능의 역할도 힘들 것이다, 장애아 개개인의 증상이나 취향이 달라서 학교 같은 일괄적 교육 하에서는 개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27번 대상자: 지적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다른 장애유형들과는 다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몸은 20살이라고 해도 정신연령은 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30번 대상자: 학교에서 특수교사 1명이 보아야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차원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주었으면 한다, 장애아들의 교육의 결과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 교육이 좋은 결과를 이루더라도 주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장애아는 사회의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다,

이상의 의견에서 3유형 학부모들은 발달장애학생이 장애 특성상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전환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의 전환교육의 한계성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현재의 일괄적인 학교 시스템으로는 장애학생들의 전환교육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학교교육의 한계성과 장애학생 자체의 한계성을 인식해야 함을 내포한다. 즉,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애인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27번 대상자의 의견에서처럼 사회적인 제도와 인식이 동시에 개선·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환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부모참여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인다.

27번 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직업 종류에 많은 제한이 있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이 성공적인 성인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의 인식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회이나 상담을 위해 시간 빼는 것이 부담스럽다,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에서 제시한 제 3유형의 학부모들이 선택한 진술문의 긍정도 및 부정도와 개인 의견을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을 지원할 때 장애인의 한계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적 제도 마련, 전

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회 전반적 인식개선, 경제적 지원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 3유형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교육의 특수성 참조형」으로 명명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연구 대상자인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51%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규(2008)는 보통 50% 이상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력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1유형과 2유형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으면서 전체적으로 제 1유형의 큰 축을 중심으로 2유형과 3유형이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은자(1993)에 의하면 Q-방법론에서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양적조사 연구에서의 요인분석과 달리 각 요인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요인 추출 방법의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 1유형에 속한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교육의 이상적 개념 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1유형은 일반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전환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장애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학령기의 특수교육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로 이어져야 하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연구 대상자 45.1%가 이 유형에 속하며, 이것은 전환교육에 대한 학부모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전환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오은영, 2010; 장지혜, 2008; 정은희, 2006)에서 우리나라 전환교육은 현재 원론적인 필요성과 개념적인 형태로만 강조되고 있다(김진호, 2006; 김형일, 2005; 박희찬, 정민호, 2005; 조인수, 박정식, 2003; 김형일 외, 2002; 조인수, 2001)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학부모 대부분이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대해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막연한 개념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인 방안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은희(2006)의 전환교육에 대한 정신지체 청소년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의 87.3%가 전환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중

5.3%만이 전환교육의 내용 및 영역에 대해 이해한다고 응답하여 학부모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은영(2010)도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급의 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 천안지역 학부모의 88.4%, 아산지역 학부모의 76.3%가 전환교육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였고, 천안지역 학부모의 70.7%, 아산지역 학부모의 84.7%가 전환교육에 대해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많은 학부모들이 본 연구의 제 1유형과 마찬가지로 전환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으나, 전환교육을 장애인교육의 일부 또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지혜(2008)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 학부모의 90.1%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교육을 바라고 있었으며 학교에 개설된 전공과에 진학하기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후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계속교육과 연계된 학습지도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교육은 평생교육의 개념으로서 학령기의 특수교육 형태로써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1유형의 인식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제 2유형에 속한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교육의 실효적 요건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2유형은 현재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서는 시설 및 기관 마련, 인적·물적 자원 및 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전환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적인 사회적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 2유형의 특성은 선행연구(김은정, 2005; 서석진, 2005; 박창석, 2003)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부모들이 전환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재정적 지원의 요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김은정(2005)은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결과, 학부모들이 전환교육의 7개 요구영역인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의 요구, 자녀의 미래 계획에 대한 요구,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요구, 성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 성인 서비스 기관과 전문가에 대한 요구, 직업 생활에 대한 요구,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관련된 요구,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 중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의 요구를 가장 필요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서석진(2005)은 학부모들은 장애자녀가 사회생활을 할 때 ‘자녀의 실정에 맞는 직장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았다고 하였으며, 박창석(2003)도 정신지체아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였다고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사회·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유형에 속한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교육의 특수성 참조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3유형은 전환교육의 개념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고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환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 시설이나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노력,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환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참여의 자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참여의 소극성 또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교육의 한계성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것은 장애 자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에 헌신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생활 문제에 쫓기는 이러한 부모를 장애인교육에 완전히 참여시키지 못하는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향자(2002)의 연구에서 전환교육의 문제점으로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시설·설비, 프로그램 부족, 지역관련업체의 인식 및 협조 부족, 교사 인식 및 전문성 부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생 학부모의 경우에는 지역관련업체의 인식 및 협조 부족, 시설·설비, 프로그램 부족,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보다 중학생 학부모의 경우가 인식 및 협조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보았을 때,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설과 국가의 지원과 같은 실효적인 요건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순애(2005)는 학교에서 사실상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학교 관리자가 무관심하다(26.6%)’, ‘특수교사의 지도능력이 부족하다(26.1%)’, ‘개별화전환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조직이 없다(24.6%)’, ‘시설 및 기자재가 부족하다(8.4%)’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부모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전환교육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나 부모의 협조 부족’을 0%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부모들은 전환교육의 문제를 자신보다는 학교나 국가 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향성은 본 연구의 제 3유형이 보이는 경향성과 유사하다.

그리고 연구 결과, 분석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 1유형이 전환교육에 대해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문제점이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환교육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학부모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이원우, 2003; 김희승, 2001), 이는 전환교육에 대한 적합한 모델이나 지침이 없어 전환교육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교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한경임, 박정은, 2009)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현재의 전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전환교육을 실천하는 방법 면에서는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유형 부모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 학생 전환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유형으로 1유형이 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실질

적인 측면에서의 전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제 2유형의 학부모들이 생각하듯 모든 책임을 국가나 사회적인 측면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그 인원수는 적었지만 3유형처럼 시설이나 물적 자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교육에 대한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인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세 유형 중 제 1유형이 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으며, 제 1유형의 큰 축을 중심으로 제 2유형, 제 3유형이 근접해 있다.

둘째, 전환교육에 대한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의 인식 유형중 제 1유형은 전환교육을 일반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환교육 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제 2유형은 현재 전환교육이 국가 차원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환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제 3유형은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한계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서 전환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총체적인 관점으로 전환교육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따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 C시의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모든 발달장애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대상을 넓혀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환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관점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의 관점, 장애학생의 전환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관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한 학부모들의 자녀인 발달장애 학생의 장애등급이나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을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연구의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향자 (2002). 정신지체학교 교사와 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경숙, 한경임 (2006). 초등 특수교사의 특수교사에 대한 이미지. **정서·행동장애 연구**, 22(2), 77-102.
- 김송미 (2011).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 분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순애 (200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부모의 전환교육 인식 조사.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순은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도서출판 금정.
- 김은정 (2005). 발달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관한 부모인식.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호 (2006). 충남지역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사들의 지역사회 현장실습훈련에 대한 인식. **정신지체연구**, 8(1), 217-231.
- 김형일 (2005).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특수교육연구**, 12(2), 3-25.
- 김형일 외 16인 (2002). **장애학생 전환교육 지원 자료 1, 2, 3**.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흥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승 (2001). 고등학교 특수학급 진로교육 실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식 (2009). 발달장애 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 모색. **지적장애연구**, 11(3), 161-191.
- 박창석 (2003). 정신지체아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분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희찬, 정민호 (2005). 전환교육관점에서 본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 방향. **정신지체연구**, 7, 35-55.
- 서석진 (2005). 전환교육에 대한 정서장애 학교 학부모의 인식 조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신은경 (2002).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환교육에 관한 인식 수준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 오은영 (2010).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급의 진로 및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이원우 (2003). 중학교 특수학급의 전환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특수교육연구**, 10(1), 105-129.
- 장지혜 (2008). 정신지체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전환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전보성 (2005). 대인·사회적 기능 중심의 전환교육 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능력과 지역사회 적응기술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정은희 (2006). 천안·아산지역 정신지체 청소년 부모의 전환교육에 관한 인식.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정인숙, 김연아, 김형일, 박재국, 임소인 (2007). **특수교육기관 진로·직업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조인수 (2001). 전환교육프로그램적용이 발달지체인의 직업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 연구**, 35(4), 199-219.
- 조인수, 박정식 (2003). 정신지체학생의 전환고용 유지를 위한 사회적 문제-해결교수방법의 이론적 탐색, **정서·행동장애연구**, 19(2), 167-198.
- 한경임, 박정은 (2009).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전환교육 운영 실태와 인식 연구. **통합교육 연구**, 4(1), 1-29.
- Ankeny, E. M., Wilkins, J., & Spain, J. (2009). Mothers' experiences of transition planning for thei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41(6), 28-36.
- Clark, G. M., & Kolstoe, O. P. (1995).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education for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2nd ed.)*. Needham Height, MA: Allyn & Bacon.
- Hasazi, S. B., Gordon, L. R., & Roe, C. A. (1985).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status of handicapped youth exiting high school from 1979 to 1983. *Exceptional Children*, 51, 455-469.
- Landmark, L. J., Ju, S., & Zhang, D. (2010). Substantiated best practices in transition: Fifteen plus years later.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33(3), 165-176.
- Morningstar, M. E., Turnbull, A. P., & Turnbull, H. R. (1995). What do students with disabilities tell us about the importance of family involvement in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 life? *Exceptional Children*, 62, 249-260.
- Newman, L. (2004). *Family involvement in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youth with disabilities: A special topic report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 (NLTS-2)*. Menlo Park, CA: SRI International.
- Wagner, M., Newman, L., Cameto, F., Garza, N., & Levin, P. (2005). *After high school: A first look at the postschool experienc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A report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2 (NLTS-2)*. Menlo Park, CA: SRI International.

A Subjectivity Study on the Parent's Perception
toward Transition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n, Kyung-I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ng, Mi-Seung

Sehan University

Kim, Min-Ju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arent's perception types toward transition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Q-methodology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he Q-population of this study were 33 units. P-sample as subjects of this study was 31 parent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 city.

As a result of research, the parent's perception types toward transition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divided into 3 types.

The first type was labeled as the type pursuing ideal concept of special education. They thought only fair that transition education must be supported as the lifelong education.

The second type was labeled as the type pursuing the effective prerequisite of transition education. They thought that transition education was not as effective as it could be do to lack of national funds, facilities, and government policies.

The third type was labeled as the type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 education.

Key Words : subjectivity study, transition education, parent's perception

논문 접수: 2013. 02. 05 심사 시작: 2013. 02. 14 게재 확정: 2013. 03. 25